

“찰전어 맛보러 마량미항으로 오세요”



9월 8일부터 3일간 제12회 마량미항 찰전어 축제 개최 코로나19 위험요인 사전 차단하고자 시식행사는 취소

강진군이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마량미항 특설무대 일원에서 물오른 제철 전어를 맛볼 수 있는 마량미항축제추진위원회 주관 '제12회 마량미항 찰전어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마량미항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강진의 우수한 농수산물에 홍보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해 열리며, 개막식은 오는 8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한다.

주요행사로 식전행사인 마량면 풍물패 공연과 축제 성공을 기원하는 풍어제를 시작으로 해양구조대 인명구조 시범, 개막 축하공연, 마량미항 노래자랑, 마량면 풍경화 전시,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체험, 전어 맨손잡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행사도 진행된다.

또한 코로나19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찰전어 시식행사는 취소했다.

특히 발열체크 및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사전에 준비하고 관광객이 드나드는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등은 더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꼼꼼한 방역대책을 추진해 '청정축제'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을 중이다.

찰전어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주대열)은 "제12회 마량미항 찰전어축제는 제철 맛은 가을 전어와 아름다운 마량미항의 풍경이 어우러져 축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방문객들이 강진의 매력과 축제의 재미를 즐기고 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올해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김성민·김성남 팀장 등 선정

진도군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공무원 2명을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김성민(의료기술 6급) ▲김성남(행정 6급)이 선정됐으며, 선발된 직원에게는 포상금·휴가, 인사우대 가점 등이 부여된다.

최우수 등급인 김성민 주무관(보건소)은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 ▲조달청 혁신 제품 가상 현실 치매 케어 플랫폼 시범 사용기관 공모 선정 ▲어르신 재활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았다.

우수 등급인 김성남 팀장(군내면)은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 청취와 민원 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찾아가는 행정인 "다함께 동네 한 바퀴"를 추진 ▲주민 생활 밀착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천 ▲치안·교통안전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상승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해풍 맞고 자라 당도 높은 해변 포도 출하

당도 평균 15~17브릭스(Brix)···올해 45톤 생산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은 '완도자연그대로 노지 해변 포도'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완도군에서는 13개(5ha) 농가에서 켈벨 포도부터 거봉, 사인 머스켓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예상 수확량은 45톤이다.

특히 완도 해변 포도는 당도가 평균 15~17브릭스(Brix)로 해풍을 맞고 재배돼 다른 지역보다 1~2브릭스(Brix) 가량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많다.

완도군에서는 해풍의 농업적 이용 가치에 대한 연구 용역(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실시했는데, 완도 해변 포도의 경우 타 지역 대비

가능성 물질인 안토시아닌 함량과 당도가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변 포도는 관내 마트나 완도군 군외면 해안 도로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택배 주문도 가능하다.

구매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061-550-598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그동안 사인 머스켓 재배 비가림 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며 고품질의 완도자연그대로 해변 포도 생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복선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



"사인 머스켓 등 인기 있는 품종 생산량을 확대하여 해변 포도 브랜드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해남서 전남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 열려

우슬체육관서 어린이 흥미 가질만한 참여형 생활체육 종목들 마련

전라남도 어린이 생활체육대축전이 27일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렸다.

어린이 생활체육대축전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개최되는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로, 이번 대회에서도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참여형 생활체육 종목들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많은 가을 날씨속에 전남 시군 초등학교생 600여명이 참가했으며, 림보, 단체줄넘기, 깃발레이스, 풍선기동세우기, 파도타기 릴레이 등 생활체육 6개 종목을 비롯해 서플보드, 스

포츠스테킹, 페이스페인팅, 윈터타투, 풍선아트 등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펼쳐졌다.

오전에 열린 개회식에서는 에어샷 세러머니와 종이비행기날리기 퍼포먼스, 태권도 시범단 공연 및 마술쇼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식전행사와 축하공연도 가졌다.

한편 전라남도 어린이 생활체육대축전은 지난 6월 18일 성료된 전라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에 이어 올해 해남군에서 개최되는 전라남도 4개 생활체육대회 중 두 번째 대회이다. 해남군은 오는 9월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 10월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한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장흥군농촌지도자회, 농업 토양보전 환경정화에 앞장

한국농촌지도자장흥군연합회(회장 강평원)는 지난 25일 용산 월산재에서 '청정장흥 만들기'를 위한 농촌지도자회 활동 홍보를 위한 농업토양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촌지도자회에서는 농약 빈병과 영농 폐비닐을 읍면지회별로 미리 수거해 두었다가 이번 행사를 통해 분리작업을 거쳐 한국환경공단 순천사업소에 배출했다.

수거활동을 통해 모아진 영농폐기물은 2,500kg에 달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농촌지도자회 육성 목적에 따라 장흥군농촌지도자회는 평소에도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에 뜻을 두고 708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업인단체이다.

특히 회원들은 '농업토양보전 및 환경정화'에 앞장서기 위해 마을주변의 농약 빈병을 손수 찾아서 모으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강평원 한국농촌지도자장흥군연합회장은 "아름다운 장흥 경관 조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